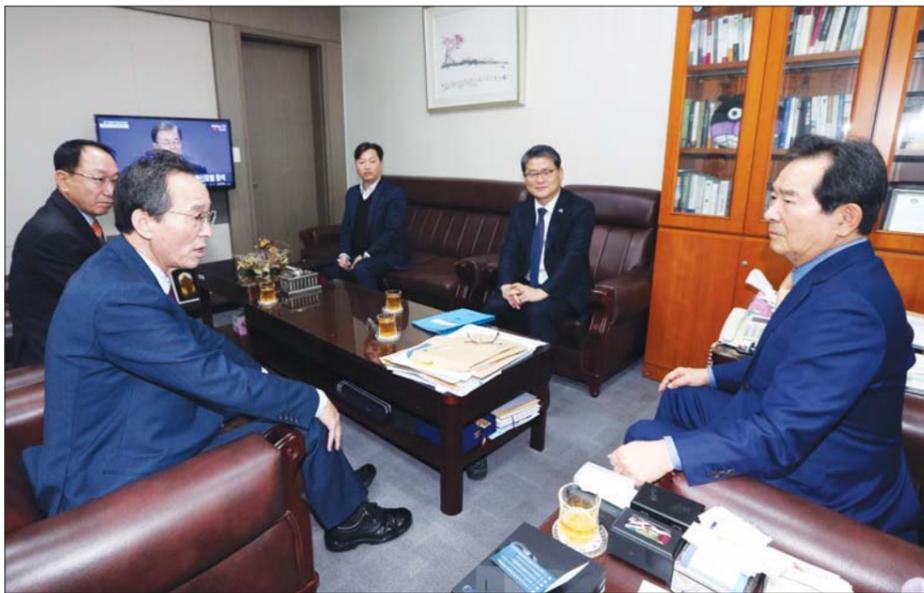


국가예산 확보 막판 승부수

송하진 도지사, 정세균 전 국회의장 등 찾아
도내 현안사업 증액 건의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예산총괄심의관 등과 면담



송하진 도지사는 25일 국회에서 정세균 전 국회의장 등을 찾아 전북도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2020년 국가예산 반영을 위한 막바지 설득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10월 말부터 다섯 차례에 걸친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이어, 25일 국회를 다시 찾아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예산총괄·사회·경제·복지안전예산 심의관을 방문해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2020년 국가예산 반영을 위한 막바지 설득에 나섰다.
특히, 이번 주는 예결소소위가 진행되면서 막판 증액사업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으로 우리 도는 예산소위 위원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인 만큼, 시군 및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를 기반으로 진행되어왔던 우리도 주요 사업들을 기획재정부에 수용 의견을 받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즉, 기획재정부 제2차관, 예산심의관 등이 최종 예산 의결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상황으로 막판 총력 대응에 따라 12월 2일 예산 반영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다.
송 지사는 이날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면담하여 한국 유학과 실학의 중심지 전북에 전라유학진흥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용역비 5억원, 전라천년문화권 관광개발계획 7억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는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인 신항만이 조기 구축 될 수 있도록 부두 2선석 동시 개발비를 포함한 새만금 신항만 건설비 905억원 등 최우선 핵심 3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상임위 및 예결위 증액 요청 예산이 최종 반영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증액 동의가 필수적임에 따라 예산총괄·사회·경제·복지안전예산 심의관을 만나 전북도 증점 확보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전북도는 내년도 국가예산이 의결되는 마지막까지 지역 주요사업 예산의 증액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도 수용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방문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면서 2년 연속 7조원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기후변화 대응 교육 착수해야”

김승환 교육감, 기후 위기 대응 주문

정부가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예고한 가운데 김승환 교육감은 시행령 개정의 무력화 논란을 일축했다.
25일 김승환 교육감(사진)은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효력이 정권이 바뀐 후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언급한 뒤 “내년에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도래하는 학교들은 평가를 받지 않는다. 이는 시행령 폐지의 효력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기후변화와 기후 위기에 민감하게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전북에서 움직인다고 해서 대한민국, 전세계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데 어떤 힘이 되겠느냐”라고 걱정하며 “타지역의 중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징계의 범위가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서 “전북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사법처리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이탈리아에서는 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 기후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면서 “우리도 학교에서 기후대응 교육을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와 함께 대학 입시와 관련해 교육부의 기본방향인 “정시확대, 학종비교과 폐지인지는 아니지만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수많은 사람들이 ‘정시확대·학종비교과전환 폐지’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교육부의 기본입장은 정시확대, 학종비교과전환으로 운영하고, 사실상 고교등급제까지 적용했다는 의심은 받는 일부 대학들에 대해서 징계적 조치를 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조시지도하는 중·고교 교사들이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교육감은 “전북에서 움직인다고 해서 대한민국, 전세계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데 어떤 힘이 되겠느냐”라고 걱정하며 “타지역의 중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징계의 범위가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서 “전북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사법처리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시, 국내 최초 시내버스 정기권 도입

내년 1월부터 1일권·2일권·30일권 3종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절감

전주시가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를 자유롭게 탈 수 있는 무제한 정기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내년 1월부터 1일권과 2일권, 30일권 등 정해진 기간 동안 시내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 제도인 시내버스 정기권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지하철 정기권과 코레일 정기권 등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전철과 열차를 정해진 기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은 있지만, 국내에서 시내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을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가 시내버스 정기권을 도입하게 된 것은 글로벌 관광도시답게 해외 주요 관광도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대중교통 정기권을 도입해 여행객이 시내버스를 타고 자유롭게 전주시 곳곳을 경제적 부담 없이 찾아다닐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시는 시내버스 정기권 도입으로 전주 버스 여행이 활성화되고, 전주한옥마을 중심의 여행객의 발길이 전주시 전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여행객을 위한 1일·2일 정기권과 함께 30일 무제한 정기권도 함께 도입함으로써 학생과 직장인 등이 시내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자가용 이용을 억제 시킬 계획이다. 시는 1일권 가격은 5000원, 2일권 가격은 9000원, 30일권 가격은 50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정기권을 구입하면 무제한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기권 판매는 스마트폰(아이폰 제외)으로 구입해 사용할 수 있으며, 교통 카드회사와 관광안내소 등과 협의해 실물카드도 발매할 예정이다.
시는 실물카드의 경우 전주를 찾은 여행객에게 전주여행의 추억이 담긴 기념품이 될 수 있도록 전주의 문화와 품격을 담은 디자인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장병호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정기권이 국내최초로 도입되는 만큼 이 제도를 통해 대중교통활성화가 되도록 통행패턴 등을 잘 분석해 다양한 형태의 정기권을 좀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정원에 마을 이야기를 담다

전주시, 서서학동에 주민참여형 정원 조성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천만그루 정원도시를 만들고 있는 전주시가 도시 곳곳에 마을의 이야기를 담은 주민참여형 마을정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천만그루 정원도시’는 전주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한 김승수 전주시장의 민선7기 첫 결재사업이다.
전주시는 내년 초까지 서서학동 에그린아파트 주변에 총 1억원을 투입해 마을 주민들의 참여로 마을의 이야기를 마을정원을 만드는 첫 번째 주민참여형 마을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마을정원 조성 대상지인 에그린아파트 주변은 우물터가 위치해 과거 주민들이 빨래터로 이용하면서 서로 소통하던 장소였지만, 도시개발로 인해 우물터가 사라진 이후 현재 방치된 공간으로 남아 있다. 이에 시는 해당 지역을 주민들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천만그루 정원도시에 어울리는 시민들의 소통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마을정원을 만들기로 했다.
마을정원에는 다양한 나무가 식재되고, 주민들의 추억이 담긴 우물터가 복원될 예정이다. 또 주민들의 이야기를 마을정원을 만드는 첫 번째 주민참여형 마을정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